‘5·18 폭동’ 발언 한국당 의원 등 고발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1일 김 의원 등 3명과 지 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진태 의원 등은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익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정치적 입지를 위한 목적으로 동원했다”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상실을 기반으로 한 교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 등과 지 소장의 그릇된 욕망과 사고, 어리석은 언행과 만행을 철저히 조사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순천 연향동 금호타운 주민들 시에 ‘감사청구서 접수’ 했다

감사청구에 입주민 75% 서명…곧 조사 시작될 듯

입주자대표회 등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순천 연향동 금호타운 주민들이 최근 순천시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 운영과 관련해 수십여가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자치회장)과 동대표들에 대한 순천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모 씨는 아파트 규약을 어기고 제 멋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김씨는 정년을 초과하고, 관리소장 경력이 3개월인 한모(67)씨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했다. 재활용품 등 파지 수입을 경비원들의 복지로 지급해야하는데도 정상 처리하지 않는 등 관리비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겸임 금지 등 관리규약도 위반하고 있다. 동대표가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다른 동대표 김모씨는 그 배우자가 부녀회 임원이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맡는 등 아파트를 사유화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거래 금융기관이었던 신협 7개 통장을 중도해지하고, 모두 농협으로 이전해 700여만원 이자수익 손실도 끼쳤다.

이같은 일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금호타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동대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에 47% 동의를 받았다. 순천시 감사청구에 입주민 75%가 서명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은 동대표 퇴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오수연(여)씨는 “주민에게 갑질하는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영일 씨는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한 해임투표를 외면하는 선관위와 동대표들은 당장 사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청구서를 접수와 관련 신영수 시 건축과장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공무원 등 7명의 감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하겠다”며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기피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해빙기 아찔한 얼음낚시 10일 오후 강원지역 대부분 기온이 영상의 포근한 날씨로 녹으면서 빙판의 강도가 약해져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에서 가족들이 위험한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광주시 초·중·고교 비산석면 검사 ‘적합’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까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교실, 위생설비, 부지경계 등에서 비산석면 125건을 시료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석면을 함유한 설비나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해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비산석면 검사가 시행된다.

광주시내에 석면 보유 텍스가 설치된 학교는 320개교이며 이 가운데 160개교가 지난해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 43개교 375건을 분석해 ‘안전’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했다.

조인호 기자

“아시아문화전당, 미화·방호직원 체불임금 해결” 촉구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미화·방호 업무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급여 1억6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전당과 미화·방호 용역 계약을 맺은 A업체는 지난달 31일 계약중단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용역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해당기관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함에도 문화전당은 예산과 채용절차 등을 이유로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일에도 미화·방호 직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용역업체는 10여명의 방호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임금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책임은 문화전당과 용역업체 있다”며 “문화전당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지 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청 등에 고발장 접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남규 기자

구례서 경차 가로수 들이받아 2명 사망

구례의 한 도로에서 경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1일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께 구례군 용방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74·여)씨가 몰던 경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75·여)씨 등 2명이 숨졌고 A씨 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은 같은 마을에 사는 70~80대 여성으로 전해졌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 1m 아래 도랑에 빠진 뒤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분석과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빈집 노려 상습절도 행각 3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13분께 광주 서구 한 2층 원룸에 침입해 2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01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생활비·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낮시간대 주인이 없는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화장실 창문 등을 손으로 흔들어 뜯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속여 지갑 훔친 3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공인중개사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5시35분께 광주 북구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55·여)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1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화장실에 들렀다 아내와 통화해 아파트 구입 여부를 상의하고 오겠다’고 A씨를 속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직원을 사칭한 이씨는 A씨와 아파트 2곳을 둘러보고 사무소를 찾아 면담했으며, A씨가 다른 일을 보고 있는 사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이씨는 경찰에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차 무면허 운전·여학생 감금 10대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훔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뒤 또래 여학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절도·감금·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께 전남 광양시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 169㎞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A군은 또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주택 앞 도로에서 B(15)양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SNS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광주지역 또래 중학생 4명(남학생 2명·여학생 2명)을 차례로 불러내 차량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과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내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 위해 벌인 일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구 광천동 한 도로에서 ‘수상한 차량이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교통안전계 순찰차량 4대를 동원해 신고접수 18분 만에 A군 일행이 탄 차량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수차례 중앙선을 넘나들며 10㎞ 가량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